

2019년 10월 1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협상 기대에 힘입어 반등 성공 연준 “복수의 연준위원들이 50bp의 금리 인하를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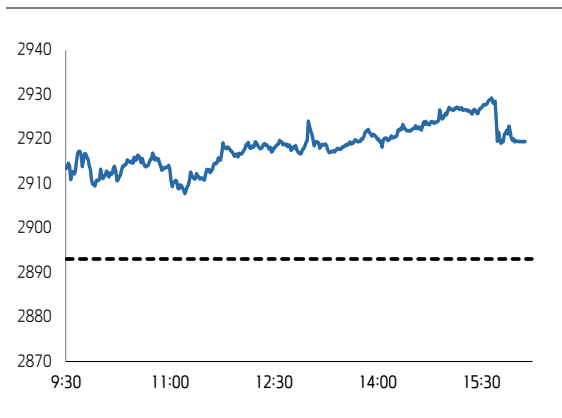
전일 하락 요인과 금일 상승 요인

미 증시는 전일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며 상승에 성공. 특히 중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연기한다면 ‘스몰딜’에 합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힘입은 것으로 추정. 한편, 파월 연준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연준도 FOMC 의사록을 통해 추가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자 상승폭 확대. 다만, 장 마감 직전 터키-시리아 군사행동으로 상승분 일부 반납(다우 +0.70%, 나스닥 +1.02%, S&P500 +0.91%, 러셀 2000 +0.47%)

전일 미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여파로 하락 출발 했었음. 특히 미 재무부의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백악관이 정부 연기금의 대 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그러나 여전히 ‘스몰딜’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분석이 많아 낙폭을 축소.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장 마감을 앞두고 ‘대차대조표 확대’를 언급하자 약보합권까지 반등 성공. 그러나 파월 의장이 “현재 지표가 금리인하를 위한 위험도가 커졌다는 표시는 없다” 라고 주장하자 매물이 급격히 출회. 시장은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켰다는 평가속에 결국 1.2~1.7% 하락 마감.

오늘은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스몰딜’에 합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 더불어 미국의 싱크탱크중 하나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면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주고, 미국의 대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만 줄어들게 될 것” 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발표한 점도 긍정적 요인. 한편, 오늘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었으나 “일부 위험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는 양호” 하라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이에 주식시장은 상승폭이 확대. 더불어 연준도 FOMC 의사록을 통해 7 월 이후 무역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소 증가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복수의 위원이 50bp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고 발표하는 등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자 주식시장 상승폭 확대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46.25	휴장	홍콩항셱	25,682.81	-0.81
KOSDAQ	635.41	휴장	영국	7,166.50	+0.33
DOW	26,346.01	+0.70	독일	12,094.26	+1.04
NASDAQ	7,903.74	+1.02	프랑스	5,499.14	+0.78
S&P 500	2,919.40	+0.91	스페인	8,991.90	+0.58
상하이종합	2,924.86	+0.39	그리스	831.72	+0.93
일본	21,456.38	-0.61	이탈리아	21,533.64	+0.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기술주 강세

JP모건(+0.72%), 모건스탠리(+1.56%), BOA(+0.94%) 등 금융주는 연준이 주요 금융당국과 함께 과거 보다 완화된 볼커를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국채금리 상승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테슬라(+1.87%)는 중국 상하이시 테슬라 3호 공장(기가 팩토리3)의 건립이 대부분 완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공장의 운영이 본격화 된다면 주당 3천대의 차량이 생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메리칸 항공(+3.07%)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보잉737맥스 운행을 내년 1월 16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한편, 전일 급락했던 마이크론(+0.56%), NVIDIA(+1.96%) 등 반도체 업종과 애플(+1.17%) 등 중국관련 기업들은 반등에 성공 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일부 투자회사에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발표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반면, 존슨앤존슨(-1.99%)은 조현병 치료제인 리스페리돈 부작용 관련 징벌적 벌금으로 8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 하락 했다. 경쟁 치료 약품인 브레일라를 제조하는 엘리간(+2.66%)은 상승 했다. 도미노피자(-2.09%)는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과 동일매장 판매 하락(+3.0%→2.4%)하자 약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79%	대형 가치주 ETF(IVE)	+0.83%
에너지섹터 ETF(OIH)	+0.18%	중형 가치주 ETF(IWS)	+0.67%
소매업체 ETF(XRT)	+0.93%	소형 가치주 ETF(IWN)	+0.34%
금융섹터 ETF(XLF)	+0.93%	대형 성장주 ETF(VUG)	+1.11%
기술섹터 ETF(XLK)	+1.49%	중형 성장주 ETF(IWP)	+1.1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04%	소형 성장주 ETF(IWO)	+0.61%
인터넷업체 ETF(FDN)	+1.06%	배당주 ETF(DVY)	+0.77%
리츠업체 ETF(XLRE)	+0.3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4%
주택건설업체 ETF(XHB)	+0.3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1%
바이오섹터 ETF(IBB)	+0.14%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0.73%	하이일드 ETF(JNK)	+0.20%
곡물 ETF(DBA)	+0.19%	물가연동채 ETF(TIP)	-0.21%
반도체 ETF(SMH)	+1.76%	Long/short ETF(BTAL)	-0.2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16.77	+1.07%	+0.20%	-6.78%
소재	349.29	+1.02%	-0.09%	-3.65%
산업재	629.83	+0.85%	+0.51%	-4.90%
경기소비재	930.77	+0.89%	+0.81%	-3.63%
필수소비재	623.81	+0.76%	+1.29%	-0.28%
헬스케어	1,026.94	+0.69%	+0.91%	-2.91%
금융	448.90	+1.00%	+0.58%	-3.59%
IT	1,402.13	+1.45%	+2.08%	-1.52%
커뮤니케이션	165.47	+0.38%	+1.32%	-3.66%
유틸리티	325.92	+0.51%	+0.83%	+2.33%
부동산	242.91	+0.31%	+1.29%	+1.3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등락

MSCI 한국 지수 ETF 는 0.5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7% 상승 했다. 전일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2,773 계약 순매도하자 1.95pt 하락한 270.30pt 로 마감 했으며 오늘은 휴장이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7.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하락폭을 키웠다. 그러나 오늘 미 증시는 '스몰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 했다. 더불어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 한국 증시는 어제 보다는 오늘 미 증시의 변화에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삼성전자의 양호한 실적 등 실적 바닥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몰딜' 가능성이 높아진 미-중 무역협상과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 등은 투자심리 개선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간 관세 부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관세 철폐 가능성이 크지 않아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제한적인 등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둔화

8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717.4 만건) 이나 예상(718.6 만건)을 하회한 705.1 만건에 그치며 3 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직률은 전월(2.4%) 보다 낮아진 2.3%를 기록했다.

8 월 미국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0.2% 증가해 예상(mom +0.4%)을 하회했다. 판매대 재고비율은 1.36 배를 기록해 전년대비(1.28 배) 증가했다.

9 월 소기업낙관지수는 전월(131.1)이나 예상(102.0)을 하회한 101.8 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EIA 가 발표한 지난 주 원유 재고가 예상(+150 만 배럴) 보다 많은 293 만 배럴을 기록하자 하락 했다. 다만 가솔린이 120 만 배럴, 정제유도 390 만 배럴 감소했다는 점은 수요에 대한 증가 기대가 높아 낙폭은 제한 되었다.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터키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으로 인한 영향도 낙폭 제한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가 유입된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 양상을 보였다. 엔화는 '스몰딜' 타결 기대가 높아지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다만, 터키가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약세폭이 축소되기도 했다. 파운드화는 EU 가 브렉시트 핵심쟁점인 아일랜드 안전장치 (backstop)과 관련된 양보 가능성이 보도되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브렉시트 우려가 이어지자 약세로 전환했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3% 강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속에 상승했다. 전일 파월 연준의장이 "현재 지표가 금리인하를 위한 위험도가 커졌다는 표시는 없다" 라고 주장하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점도 영향을 줬다. 반면, 연준은 FOMC 를 통해 복수의 연준위원이 50bp 금리인하를 주장했다고 발표하는 등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 터키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 돌입,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 상승은 제한되었다. 결국 이틀동안 국채금리는 파월과 연준의 발표 보다는 미-중 무역협상에 주목하며 하락과 상승을 보였다.

금은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상승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46% 하락 했으나, 철근은 0.21%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2.59	-0.08	-0.09	Dollar Index	99.121	-0.01	+0.10
브렌트유	58.32	+0.14	+1.09	EUR/USD	1.0973	+0.15	+0.13
금	1,512.80	+0.59	+0.32	USD/JPY	107.47	+0.35	+0.27
은	17.810	+0.62	+0.72	GBP/USD	1.2208	-0.09	-0.77
알루미늄	1,744.00	-0.43	+2.29	USD/CHF	0.9959	+0.32	-0.10
전기동	5,684.00	+0.15	+0.11	AUD/USD	0.6725	-0.04	+0.27
아연	2,291.00	-0.30	-1.16	USD/CAD	1.3335	+0.08	+0.07
옥수수	394.25	-0.38	+1.68	USD/BRL	4.1044	+0.22	-0.63
밀	500.25	0.00	+2.30	USD/CNH	7.1417	-0.31	-0.09
대두	923.75	+0.35	+1.09	USD/KRW	1193.10	-0.29	-0.26
커피	95.45	-0.26	-5.12	USD/KRW NDF1M	1197.95	-0.09	-0.5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580	+5.13	-1.90	스페인	0.148	+2.90	-1.80
한국	1.422	+2.70	-3.80	포르투갈	0.130	+1.70	-5.10
일본	-0.200	+0.10	-3.60	그리스	1.407	-2.70	+5.90
독일	-0.548	+4.60	-0.20	이탈리아	0.866	+2.50	-3.30